순천 중흥S 2.45대 1
한토건설 1차분 완판

전남 도시권 청약시장 '봄바람'

광주에 불고 있는 아파트 청약 열풍이 전남 지방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평균 13.9대 1의 경쟁률로 광주 분양시장을 달궜던 GS건설의 '첨단자이 2차' 아파트가 92%의 계약률로 분양에 성공한 데 이어 순천 신대지구에 공급 중인 '중흥S-클래스 2차'도 평균 경쟁률 2.45대 1을 기록, 분양 열기를 이어갔다.

중흥건설(대표이사 정창선)은 이날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2차' 3순위 청약 결과, 1021가구 모집에 284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4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3㎡(39형)는 139가구 모집에 666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이 4.79대 1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순천은 광양만권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구매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중흥S-클래스 2차'는 총 1166가구로, 전용면적 72㎡(28형)·84㎡(33형)·103㎡(39형)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3.3㎡(평)당 600만원대, 초기 계약금 5%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다. 입주는 2013년 6월 말 예정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완비했다. 2700㎡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센터에 길이 25m, 4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유아풀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며, 계약기간은 다음달 4~6일 사흘간 순천 조례호수공원 인근 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61-727-1000.

한토건설의 '순천 센트럴카운티' 아파트도 청약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전체 664가구 중 1차 분양분 30가구를 최근 청약 접수해 30명이 신청했다. 입주는 2012년 3월 예정.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악지구에 516가구를 분양 중인 근화건설의 '베아채 스위트'도 인기가 높다.

지난 25일 문을 연 '베아채 스위트'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첫날 5000여명이 방문한 데 이어 주말·휴일에 1만여명이 다녀갔다.

남악신도시 이마트 신축예정부지 옆에 위치한 '베아채 스위트 1차'는 지하 1층, 지상 15~18층 8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m²(35형) A타입 252가구와 B타입 264가구의 중형으로 이뤄졌다. 입주는 2013년 9월께 예정이다. 분양가격은 2억 원가량으로 3.3㎡(평)당 580만 원대다. 계약금 5%와 전액 중도금 대출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조건도 좋다.

청약기간은 28~31일까지 4일간이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일, 계약은 다음달 5~8일이다. 문의 061-287-7878.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소비심리 석달째 '꽁꽁'

22개월만에 기준치 아래로

3월중 광주·전남의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200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밑돌아 소비심리가 냉각 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37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8로 전달(107)보다 9P 하락했다.

이는 1월(110), 2월 (107)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2009년 5월(108)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밑돈 것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 100을 웃돌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사람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현재 경기를 보는 눈은 더욱 나쁘다. 3월 중 현재경기판단CSI(78→60) 및 향후경기전망CSI(89→71)는 각각 18P 내려가며 지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CSI(소비자동향지수)(89→86)는 전달보다 3P 하락했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전망CSI(98→86)는 12P 하락했다.

또 6개월 후의 가계수입전망CSI(100→94)와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소비지출전망CSI(112→107)도 각각 6P와 5P 하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포스코, 2조2000억 투입 설비증설

포스코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2013년까지 포항제철소에 파이넥스, 선재, 스테인리스 제강 공장을 신·증설하는 데 2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파이넥스는 포스코가 기존 고로 방식을 대체해 개발한 차세대 제철 공법으로, 포스코는 연산 200만t 규모의 3파이넥스 신설 공사를 6월 시작해 2013년 6월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운 파이넥스 설비는 향후 신설되는 4선재 공장과 증설되는 스테인리스 400계 생산설비의 쇳물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4선재 공장은 연산 70만t 규모로, 올 12월 착공해 2013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작년 우리나라는 약 124만t의 선재를 수입했고 내년에도 부족량이 170만t에 이르는 등 선재 공급이 부족해 선재공장 신설은 국내 선재 수요기업의 소재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스테인리스 400계 생산설비 증설사업은 기존 탄소강 1제강 공장을 스테인리스 400계 전용 제강 공장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연말 시작돼 2013년 2월에 마무리된다.

철 스크랩 대신 용광로에서 생산되는 쇳물을 원료로 사용해 연 800여억원의 제조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光銀 '동일본 대지진 피해대책본부' 운영

광주은행은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동일본 대지진 관련 피해대책본부'를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정찬주 기업고객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기업 현황파악과 지원을 총괄한다. 광주은행 모든 영업점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사례가 접수되면 본점 대책본부(062-239-6551)에 즉시 보고해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구호 목적으로 일본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 중 일본 관련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신규 운영자금 지원시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 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

이팔성 회장 연임 확정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새로운 3년 임기를 개시, 민영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안건 등을 결의했다.

우리금융 창립 이후 첫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은 앞으로 3년간 민영화 작업 마무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유니베라 미국 텍사스 농장. 원안은 골드큐 1호세트 제품.

유니베라, 세계 알로에 시장 1위 우뚝

'큐매트릭스' 美 식품의약국 GRAS인증 획득

㈜남양알로에서 사명을 변경한 ㈜유니베라가 자사 생산품 '유니베라 큐매트릭스 액티브알로에(이하 큐매트릭스 알로에)'의 미국FDA(식품의약국) GRAS인증 획득 쾌거 등 세계 알로에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GRAS는 안전하고 우수한 원료에 대한 품질기준인증이다.

2003년~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세계일류상품에 8년 연속 선정된 큐매트릭스 알로에는 알로에 효능 효과를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해냈다. 유니베라는 이를통해 세계 48개국 414개 특허출원을 획득하는 등 천연물 연구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큐매트릭스 알로에 품질기준은 2000년 중국 경공업청이 제정한 법률안에 '유니베라의 품질기준에 준한다'라고 명시될 정도로 세계 알로에 제품 효능기준의 표준이 되고 있다.

지난 1976년 국내 최초로 알로에 시험재배에 성공한 이후 우리나라 알로에 산업을 개척해온 ㈜남양알로에는 2006년 창사 30주년을 맞아 ㈜유니베라로 사명을 변경했다. 최고의 품질만을 전달하겠다는 기업철학을 앞세워 세계 천연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연구개발, 제조, 판매까지 하는 생산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전국 450개 대리점과 2만5천여명의 생활건강 설계사인 유피(UP·Univera Planner)들이 활동하고 있다.

유니베라는 현재 전 세계 알로에 원료시장 8700만달러(약 1000억원)중 약 41%인 3830만달러(약 420억원)의 알로에 원료를 세계 40개국 700여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 멕시코, 러시아, 중국 등 해외에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장을 운영, 알로에 및 황금 등 천연 식물을 재배 연구, 원료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처럼 유니베라는 타 기업과 달리 세계 4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알로에 원료로 100%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어 타제품과 크게 차별화된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세계1위의 건강기능식품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주간 증시 포커스

전기전자·은행·보험株 관심

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장중 1,882p까지 하락했던 KOSPI가 악재에 대한 내성 강화와 8일간 1조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2,000선에 안착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일시적인 지수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글로벌 증시에 휘몰아치던 한 차례 폭풍이 잦아드는 모습이다.

물론 해외 악재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일부 제어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유출규모는 정도를 더해가는 양상이다. 중동에서는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 바레인에 이어 예멘, 시리아 등으로 시위 열기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처럼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직전 고점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악재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 대지진 이후 재건 관련 수혜주들이 여전히 지수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보다는 향후 재건 과정에 관심이 더 모아지는 모습이다.

KOSPI는 단기 급반등으로 인해 탄력은 둔화될 수 있으나 당면하고 있는 1/4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점이다. 그러나 기계, 운수장비(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1/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된 업종들의 경우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지난 주 금요일에는 이들 선도업종이 단기적인 가격부담으로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가격메리트를 바탕으로 상승시도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KOSPI가 저점 대비 9%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심화된 종목별 차별화를 감안할 때 당분간 가격메리트에 초점을 맞춘 순환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전기전자와 은행,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GWANGJU FOOTBALL CLUB

월드컵 이후 최다 관중기록 36,241명

홈경기 개막전 '펠레 스코어' 승리!

축구에 대한 갈증과 기대감이 새역사를 썼다!

시즌권 판 매

회원권 가격안내
- 일반인(E·W석) : 홈경기 모든 게임 어른10만원/청소년5만원/어린이3만원
- 서포터즈(N석) : 홈경기 모든 게임 어른6만원/청소년4만원/어린이2만원

회원권 구매 안내
- 온라인 : www.ticketlink.co.kr (신용카드 및 무통장거래/24시간 운영)
- 오프라인 : 광주FC사무국, 광주FC 각 매표소 (신용카드 및 현금 구입/평일 09시~18시 운영)

무료제공 혜택
- 어 른 : 유니폼·리플렛카드(패밀리 혜택 포함) 제공
- 청소년 : 조마 티셔츠·리플렛카드(패밀리 혜택 포함) 제공
- 어린이 : 조마 티셔츠·구단사인볼·짐쌕 제공
- 서포터즈 : 조마 티셔츠·리플렛카드(패밀리 혜택 포함) 제공

광주FC vs 포항스틸러스

2011년 4월 2일(토) 15:00 (광주월드컵경기장)